

# 209개국 1만5000여명 참가 ... 세계 45억명이 함께 '평화의 물결 속으로'



한국 수영 여자 접영 100M 기대주 인세현



대회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문나은



아티스틱 수영 듀엣 최정연-엄지란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희 임직원일동



### 최신 하이푸 도입

여성의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종 비수술치료

- 제 1회 임신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인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연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



2019년 세계인의 눈은 광주의 푸른 물빛에 와 닿는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5대 스포츠 빅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가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회 준비 순조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해외 홍보가 본격화한다. 대회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기장 증축과 공정을 80%인 선수촌 등 시설 분야, 수송·숙박·경기 진행 등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모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PC), 교통 안내서비스, 개폐막식 준비, 입장권 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 한국의 디지털 기술 선보인다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세계의 선보이는 장으로 치러진다.

조직위원회는 국내 최대 종합 통신사업자인 KT(케이티)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통신 부문 공식 후원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T는 조직위로부터 국내 스포츠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대회 로고와 마스코트, 공식 후원사 명칭 등을 각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 KT는 대회기간 전자통신망, IT 운영시스템 등 첨단 ICT 기술이 반영된 대회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해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VR/AR(가상/증강현실) ▲비대역 ▲드론 등의 기술을 접목한 ICT 홍보관을 대회 경기장 등에 설치하여 각국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병창동계올림픽,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 기업 후원에도 총력 = 대회 성공을 위한 기업 후원 작업도 마비지에 이르렀다. 조직위는 FINA 후원사인 니콘, 아쿠르트, 아레나, 밀서플, 오메가, 삼성 등 9개사를 제외한 국내폰서, 국내서플라이, 국내서포터 등 후원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스폰서는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 예체능, 교통, 인터넷포털 그리고 국내서플라이에는 생수, 은행, 케이터링, 가구, 게임, 보안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서포터는 숙박, 백화점(마트), 보험, 물류, 정장류, 맥주, 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참여 기업 및 지역에 연고 높은 대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대회 물자 관련 분야는 후원 경쟁 모임을 통해 후원금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및 ناش트 기업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의 참여도 바라고 있다. 현재 중흥건설(후원금 1등급)의 부대시설 공사(현물)에 대한 계약 및 협약식이 예정돼 있고, 세방여행(3등급) 현금 및 현물 계약이 완료됐다. KT(1등급)는 현금 및 현물 관련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정장, 티셔츠, 가구, 보험 등에 대해서는 기업 후원 경쟁 모집 공고를 냈거나 낼 예정이다.

입장권 판매대상은 개폐막식, 6개 종목 76개 세션

## 첨단 디지털 기술·산업·문화 접목 세계 5대 스포츠 빅 이벤트 북한 참여 준비 ... 남북 예술단 공연 등 '평화의 축제'로 열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의 59만5000석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41만 9000매를 발행해 37만매를 판매하겠다는 것이 조직위의 목표다. 국내에서 80%(30만매)를, 해외에서 20%(6만 9000매)를 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온라인, 3월부터 오프라인 판매에 나선다.

◇ 생산유발 효과 광주 1조4000억원 = 직접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인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에는 177개국 선수 2303명, 임원 1912명, 수역대회연맹 관계자 1279명과 1611개 미디어와 방송 등이 참여했다. 본 대회에 이어 열리는 아바주어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즈대회 등 독자 수도 1만2000명에 달했고 대회 기간 48만 명의 관광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대회를 중계했고, TV 누적시청자당 5억10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로서는 최대규모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거취들이는 경제효과와 막대하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팀이 추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 효과 전국 1조원, 광주 6500억원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광주 1만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회 기간 전 세계 수영 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명이 언론을 통해 대회 소식을 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장권 판매도 시작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개폐막식을 포함한 6개 종목 90세션(경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대회 개최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조직위 입장권 누리집(https://tickets.gwangju2019.com)을 통해 내년 1월 2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개폐막식과 6개 종목별 경기에 총 41만 9000장(89억4000만원)이 발행된다. 발행량 90% 이상인 37만장(75억원) 판매를 목표로 국내에서 80%인 30만장, 해외에서 20%인 7만장을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입장권 전체종류 평균가격은 3만원이다. 인기종목인 경영·다이빙·아티스틱은 3개 좌석 등급이며

‘예산전 B석 1만원~결승전 S석 7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는 2개 좌석 등급에 예산전 A석 1만원~결승전 S석 5만원’이다. 개최식 입장권 가격은 ‘B석 4만원~S석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조직위는 입장권 주구매 고객에게 최대 15% 할인 혜택을 주는 등 각종 할인 적용을 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실시되는 대회인 만큼, 남도의 다양한 맛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될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특히 특히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지펴지는 만큼, 북한 참여를 넘어 남북단일팀 출전 열망도 커지고 있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 문화도시의 아름다움 선사 = 광주시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 문화·예술·관광 이벤트, 프로그램, 사업이 집중시작 방침이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는 달리 비용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 등도 함께 구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티켓 판매, 후원사 모집 등 대회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대회기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운영해 수영선수단과 관람객에게 광주의 거리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9 ACC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해외팀을 초청, 거리극과 공동 퍼포먼스 등도 함께 선보인다. 공동 예술의 거리 및 메인 예술아시장에서는 아시아문화예술축성과 거점 프로그램들, 주요 공연장과 선수촌·경기장 인근·극장 등에서는 시, 저지구, 광주문화재단, 민간공연단체 등이 17건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 등을 집중해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선수단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5개 경기장별로 경기 전 1~2시간이 소요되는 소공연을 열어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및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시티투어버스 확대 및 인근 관광지 연계 ▲광주 관광안내소 특별 운영 ▲광주외국인출입국센터 ▲관광객 편의시설 및 이벤트 동시 개최 등

도 준비중이다.

◇ 평양에서 비엔날레 열리나 =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남해 재단이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북한 평양에서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평양에서 가장 '평화비엔날레'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 중이다. 재단 측은 지난날 올해 비엔날레 행사를 마치고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과 협의를 추진했다.

광주시와 재단은 정상회담 답방 등 상황을 보며 공동 행사 개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중장기 계획안의 남북 교류 문화 사업의 일환인 평화비엔날레는 문제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올 상반기 올리는 등 추진에 노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작곡을 전사했는데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측 작곡도 북한에서 전사하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재단과 함께 (공동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북한 참여도 준비 = 병창동계올림픽 이후 잇따른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11월 열린 남북체육회담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내년 대회의 북한 참가 전망은 밝다. 공식적으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북한 선수의 참가를 요청했다.

세계수영연맹(FINA)에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 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앞서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제안과 북한예술단 광주 초청을 위해 이 용성 광주시장이 전남 조영준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면담에서 조 장관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 선수단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를 북측 관계자와 논의했다"며 "이번 10·4 선언 기념행사로 평양에 방문할 때에도 북측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동호인의 축제 마스터즈 대회 = 조직위는 국내와 수영 동호인을 위한 특화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김정현 시장은 "국내의 마스터즈 참가 규모를 200여 개 국에 8000여 명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 위해 수영 재팬도 등을 고려해 특화된 홍보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와 여수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각종 수송지원 대책과 대회기간 중 국내외 선수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스터즈 동호인들을 위한 총 9개 분야의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내년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개최되며, 경영·다이빙·수구·오픈워터수영·아티스틱수영 등 5개 종목이 광주 남부대와 영주체육관,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등에서 각각 열린다.

대회기간 2019년 1만5000여명이 참가해 남부대·영주체육관·조선대·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등지에서 실력을 겨룬다. 순수하게 선수권대회에는 4000명, 이 중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마스터즈대회에 8000명이 각각 참가한다. 미디어와 FINA 관계자 등 3000명도 광주를 찾는다.

오광익기자 krah@kwangju.co.kr

www.hyosungtoyota.com

ALL NEW AVALON HYBRID

변화로 완성된 하이브리드의 품격 과감한 본능을 깨우다

광주 전시장 : 062-371-8383 (문천역 3번 출구)  
순천 전시장 : 061-741-8111 (신대지구 사거리)  
전주 전시장 : 063-273-3222 (덕진동 현대 호텔 현대 호텔빌딩 인근)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CAMRY HYBRID (배기량 2,487cc, 공제중량 1,655kg, e-CVT), 복합연비 : 16.7km/l (도시연비) : 17.1km/l, 고속도로 연비 : 16.2km/l, 복합 CO2 배출량 : 95g/km, 등급 : 1등급  
※ 연비는 표준연비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운전조건에 따라 실구현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